

담양군,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 위한 법제교육 추진

담빛농업관 강당서 공직자 80여 명 대상 순회교육 진행 “법무행정 역량 강화해 행정 신뢰 제고·적극 군정 추진”

담양군은 17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용우 법제관과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업무 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안과 실무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전남도청에서 시군별 소수 인원만 신청받아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공무원 순환근무로 인해 자주 업무가 바뀌고 새로운 법령의 제·개정 등은 물론 군정 정책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올해는 군에서 법제처에 방문형 교육을 요청했다.

강의는 이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맞춰 법령 이해도와 실무능력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구조, 형식, 입안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과 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실무 적용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고 바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 사례 위주의 교육 진행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있어 형식은 물론 내용상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에 실제 적용 시에 논란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신중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밀접히 관련되는 자치법규인 만큼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아기 탄생 축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곡성군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 등이 기재된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거주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아기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택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정문수 민원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기 탄생의 기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색다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이 외에도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효과로 곡성군 출생아 수는 2022년 44명에서 2023년 62명으로 40%가량 증가한 바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 6월 말까지 징수...특별징수반 편성

화순군은 19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69건이고, 체납액은 약 2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체납고지서와 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해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는 감소하지 않았고,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사전독려하는 현장 징수 선행 활동을 전개하였다.

화순군은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체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5월에는 장성군 황룡강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황룡강변서 식재행사... 길동무 꽃길축제 앞둔 5월 중순부터 만개 예상

회원 15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해바라기 꽃밭 조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회원들은 2만 8,000여 주의 해바라기를 함께 심으며, 5월 24~26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해바라기 꽃밭의 개화 시기는 5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현장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의 탐과 정성이 담긴 해바라기가 장성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즐겁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4일 막을 여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는 ‘음악이 흐르는 장성 황룡강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3일간 펼쳐진다. 화사한 봄꽃과 낭만적인 야경은 물론 독서와 축제를 동시에 즐기는 ‘북 캠프’,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펫 문화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특히, 축제 주무대인 황룡정원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이 일찍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성=김수경기자

회원을 위한 16일 황룡강 힐링허브정원-장안교 일원에서 해바라기 식재 행사를 가졌다. 한국농촌지도자장성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장성군연합회, 장성군4-H(에이치)연합회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	



장성군이 16일 황룡강 힐링허브정원-장안교 일원에서 해바라기 식재 행사를 가졌다. 한국농촌지도자장성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장성군연합회, 장성군4-H(에이치)연합회

구례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준비 본격 추진

구례군은 지역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구례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4대 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에는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의회의장, 구례군 관내 교육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회가 열렸다.

사전 업무협의회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목적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 용역 발주 추진 상황 보고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군은 연구 용역을 통해 구례군 교육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구례군 최적의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 모델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병문안 3대 원칙 홍보...병문안 시스템 점검도 추진

나주시는 최근 안전한 병문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병문안 3대 원칙’은 ▲병문안 가능 시간·장소·허용인원 확인하기 ▲감염성질환자·노약자 등은 병문안 자제하기 ▲개인위생수칙 지켜기로, 올바른 병문안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나주시는 시·보건소 누리집, 전광판,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병원·요양시설 등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병문안 문화개선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병문안 장소, 문병객 방문 기록지, 손소독제 비치 현황 점검 등 병문안 시스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올바른 병문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	